



2024년 / 3월 2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3월 12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사무국 광주 방문

연구원 변주승 원장과 사무국장, 송정현 연구기획실장, 박애스더 행정간사가 지난 1월 서울에서 광주로 병원을 옮겨 개원한 김경수 이사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차상현, 이영규, 김호균, 변중섭, 변장섭 회원 등 광주지부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경수 이사의 귀환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지부의 사업 활성화를 다짐하며 사업의 현장에서 더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김주열과 십대들 -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월 15일로 예정된 제 4대 정·부통령 선거 훨씬 전부터 치밀한 부정선거를 준비했다.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 전체득표율 85% 이상을 확보케 위하여 사전투표에서 먼저 40%를 확보하고, 정식투표에서도 3인조, 5인조 투표를 조장의 감시 아래 감행하게 하여 다시 40%를 확보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폭로한 부정선거 방식은 4할 자유당 사전투표, 3인조·5인조 투표, 유권자 명부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장 내 환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이었다. 키보드와 종편의 나레이션을 통해 벌어지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당시 민중들의 분노는 다르지 않았다.

시민과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기도에 맞서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저항에 나섰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유세에 못 가게 하기 위해 강제 등교시킨데 반발하여 일어난 이날 시위는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등에서 1200여 명이 참가했고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다.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학생 시위였다. 이어 3월 8일에서는 대전에서, 10일은 충주에서, 14일에는 부산의 8천여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3월 15일 선거날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항구도시 마산에서 유혈참사가 벌어진다. 오전 10시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한 야당 인사들은 분노하는 시민과 합세하여 시위대를 형성, 마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누엣누엣 기울 무렵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공방전을 벌였다. 부정선거의 결과물로 개표가 진행중이던 마산시청 앞에 집결한 시위대는 경찰의 발포로 총탄과 직격 최루탄에 생떼같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다. 시신과 부상자들은 속속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때 참으로 황망한 일이 벌어진다.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시신들의 호주머니에 '불온문서'를 집어넣고 그들이 빨갱이들이라고 우겼다. 협조(?)를 거부하는 병원장에게는 권총까지 들이밀었다고 한다. 그 종이에선 빨간 글씨로 인민공화국 만세가 쓰여져 있었고 피도 묻어 있었다.

그러나 머리에 총을 맞은 김용실의 뒷주머니에서 나온 종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이상했던 검사는 간호사들에게 물었다. 그때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경찰이 원장님한테 뼈라가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검안서에 적으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거부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고 하는 발뺌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항거하는 작은 날개짓이었다. 이는 한 목소리로 세상에 분노할 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드디어 용트림을 시작한다는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3.15 하면 김주열의 최루탄 박힌 참혹한 모습만 떠오르지만 그날 시위에서 열 두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명이 10대였다. 몽고아이스케키집 아들 마산상고 1학년 김용실, 구공탄 장수 아버지를 도와 리어카를 밀면서 야간 중학교라도 가겠다며 밝게 웃던 김영호, 홀어머니 밑에서 근근히 고학하며 마산고등학교 졸업장을 거머쥔 지 며칠 안 된 김영준, 중학교 졸업 후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방을 버리고 기계를 잡았던 전의규. 모두가 새파란 청춘들이었다. 대한민국 경찰은 그들을 쏘아 죽이고 그 호주머니 안에 불온문서(?)를 집어넣었고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며 경찰서에 찾아온 엄마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 보냈다.

64년 전 마산에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소박한 저항으로 시작된 젊은이들의 외침에 총칼로 화답한 이들의 최후는 역사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역사를 잊는 순간, 다시 어제가 시작될 것이란 것은 명확하다.